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15호](2014.12)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출발의 달 12월! 마무리와 함께 2015년을 향하여 별공양법요, 전국의 정사에서 봉수

별공양개백호마법요가 12월 15일 전국의 정사에서 일제히 봉수되었다. 누구에게나 명운을 관장하는 별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별을 공양하여 새해의 전화초복(轉禍招福)을 기념하는 이 법요는 15일 대열반상 존전에서 종정스님의 도사로 신묘밀에 의해 엄수되었다. 참좌한 교도들은 좋은 운명을 열기 위해, 스스로의 불성을 닦는 대승의 실천을 모두 서약하였다.



<별공양 법요의 도사를 해주시는 종정스님>

제5회 청년변론대회, 부산정사에서 청년들 사자후 토로

진여원 청년교도 제5회 변론대회가 지난 12월 14일 부산정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변론대회에서는 배은영, 박수진, 신현제, 이충렬 청년 4명이 뜨거운 열정과 각오를 쏟아냈다.



<부산정사에서 개최된 제5회 청년 변론대회에 참여한 청년들>

2015년 한수행, 1월 23~25일 전국에서 일제히 개최 예정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해지는 한수행이 1월 23(금), 24(토), 25(일) 3일간 각 포교소에서 새벽 6시 30분에 개최된다. 범부모께서 입교하실 때의 과정을 추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한수행은 한해의 정진을 각오하는 중요한 수행으로서 전세계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한수행 기간중 서울포교소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수행에 이어 특별 프로그램도 계획되고 있다.

진여원,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메세나패 수상

진여원은 12월 23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7회 교육메세나패를 수상하였다. 메세나패는 한해동안 3천만원 상당의 교육기부 운동에 참여한 기업·단체에 시상하는 것으로서 이번은 34개 기관이 메세나패를 시상받았다. 시상식이 열린 당일 부산시 상공회의소에는 진여원을 대표하여 김창근 이사장과 김영준 사무국원이 참석하였다.



<제7회 부산시 교육청 주최의 교육메세나패 시상식에 진여원이 수상>

12월 8일 성도회 법요, 전국 정사에서 일제히 개최

석존께서 인도 붓타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여신 이날, 전국 각 정사에서는 성도회 법요가 개최되어 참석한 교도들은 석존의 불퇴전의 믿음을 이어받고, 이타행을 관철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진여원, 부산시 연제구청 김장김치 만들기 봉사에 참여

11월 27일 부산정사가 위치한 연제구 연제구청에서 불우이웃 돕기 김장김치 만들기 봉사에 진여원도 참가하였다. 여러 종교단체의 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여원에서는 사토 한국담당, 김영준·김상환 사무국원이 봉사를 하였다. 아울러 김장김치에 필요한 500만 원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부하였다.



청년교도 16명, 청년회 60주년 응현원 기념행사에 참석

진여원 한국청년교도 16명이 지난 11월 22일 응현원에서 거행된 청년회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아시아 및 유럽에서 600여명, 일본에서는 400여명 등 전세계 1,000여명의 청년교도들이 모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5회 변론대회] 세계청년회 플래시 몹 역할로 큰 힘을 받아 정진을 각오하고 있는 박수진 청년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변론대회에 참가하게 해주신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호법선신님, 신노 게이슈사마께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WYF, 전세계 청년회합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12월 부산 변론대회에 참석해 보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겁이나 거절했습니다. 몇 일 뒤 청년부장으로부터 동일한 요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며 영광으로 생각하자고 마음을 바꾸어 참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막상

막막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시작한 것은 4,5년 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다녔는데, 당시에는 저도 어려서 별 생각없이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신노엔은 이상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회 활동에 가끔씩 갔었는데 처음에는 낯설어 힘들었으나 청년들이 친절하게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되었고 절에 가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법요에 참석하자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청년들과 얘기도 하고 웃고 하니 또 다른 재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다니는 사람 모두 행복해 보이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정진하여 힘을 얻고 나의 행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진학 전, 스트레스로 부모님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 때 접심을 받고 마음 다짐을 새롭게 해 나가자, 옥하는 성격도 많이 고쳐졌습니다. 화부터 내던 제가 언젠가부터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많이 웃고 있다는 것과 내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가르침 덕분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진을 했습니다.

얼마전 WYF에 가기 전에 플래시 몹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게이슈사마를 가까이에서 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니 세계청년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의사소통도 힘들 것 같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습하는 중 마음이 통화고 대화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무대에 섰을 때 그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이슈사마께서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눈도 못 마주치겠고 안무도 틀리고 머리 속이 하얘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일청년들의 포럼이 있었는데 일본 청년들과 서로 교감하고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행복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계 청년회합에 참가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이슈사마의 힘을 많이 받은 덕분에 면접을 본 곳에서 2차까지 합격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느낌이 들자, 더 많은 힘이 났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을 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도 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호법선신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회 변론대회] 신노엔에서 출구를 찾으려 했으나, 오히려 매력에 빠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배은영 청년

변론대회가 처음으로 부산정사에서 열리는 뜻 깊은 날에 귀한 기회를 주신 부처님,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 호법선신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부산에 이렇게 멋진 정사가 건립되어 저도 많은 분들과 행사들을 함께 하여,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여 부처님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제가 종종 교도분들에게 “어떤 계기로 신노엔에 다니게 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두, 세 분 중 한 분은 꼭 ‘신노엔에 빠져 있는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 파헤치려고 신도 코스프레를 하다보니 어느새 자신도 계속 다니게 되었다’ 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출구없는 신노엔의 매력에 빠진 분들의 ‘꽤기 넘친 입신담’을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변사로 나선 걸 보면 신노엔은 정말 엄청난 매력을 가진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 회사에서 인도자를 만나 신노엔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포교소에 갈 때마다 교도분들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왔네~', '청년이 왔네' 하시며, 정말~ 반갑고 기쁘게 맞아주셔서 마침 회사를 쉬고 있던 저는 평일에도 장년분들의 틈에 섞여 다과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가정집회에도 종종 참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해주시는 가르침과 격려의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어 자연스럽게 포교소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해서도 계속 가르침을 이어나간 덕분에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도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직과 짝은 야근으로 인해 1여년간 가르침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르침을 하며 즐겁게 생활했던 때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절에 나가보자!'며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저를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잘 돌아왔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겪었던 마음고생에 목이 메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접심에서도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어 부딪히지 않고 길을 걸어갑니다. 신도 인사마께서 나에게서 몸이 아픈 것이 수행입니다' 라고 하셨듯이 10개의 벽이 있다면 10번 마음의 눈을 떠서 나중에 다른 청년들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영언이 저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잠깐이라도 접심을 받았더라면, 틈을 내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상대방을 대했더라면, 지금의 좋지 않은 상황이 행복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마음이 어두울 때는 만나는 것이 모두 재난이다. 눈이 열려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보물이다' 라는 성훈의 한 구절을 직접 체험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행복해졌으면, 함께 신노엔의 매력에 빠져 정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청년회 60주년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축제의 현장으로 바뀐 응현원에서 세계청년들과 화합하며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일본 청년회가 오래된 만큼 규모도 크고,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발한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지지않고 기쁜마음으로 봉사하며 가르침을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